

전주시민축구단, 홈 2연승 도전

27일 대구FC B팀과
K4리그 2022 5라운드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홈 2연승에 도전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2022 5라운드 대구FC B팀과 홈경기를 갖는다. 특히 전주는 올 시즌 4라운드까지 득점 11골로 경기당 3골을 터트리며, 공격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양태열과 김도형이 각각 4골과 6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에서 각각 2위와 1위에 랭크됐다. 승점 7점(2승 1무 1패)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대구FC B팀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 홈 2연승과 함께 선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무승부를 통한 승점 1점보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전주는 4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고 있는 양태열과 이종서(2골), 고준영(1골), 박광윤(1골), 김종진(1골), 심원성(1골), 김태연(1골), 김도형(도움 6개) 등 모든 가용 선수를 총 동원해 대구FC B팀을 압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격에서 김도형과 양태열, 박동주, 김종진이 막강 화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중원에서는 신원호와 김태연이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김영준, 여인혁, 임채관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다. 골문은 지난 경기에서 킬러 시트를 선보인 엄문기가 또다시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감독은 "올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날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막강화력으로 관둘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2022 5라운드 대구FC B팀과 홈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전주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김종진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실업연맹회장배 대회서 10m 공기권총 단일반 단체·개인전 각각 2위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강원국체사격장에서 펼쳐진 2022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여자단일반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은 기존 선수인 2022년 국가대표 황성은 김예지 선수와 영입 선수인 전 국가대표 후보선수 이시운, 윤선정 선수가 출전했다. 단체전 1위 BK기업은행과 5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황성은 선수는 개인전 본선 4위로 진출하여 결선 2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은 2005년 8월 창단되



어, 객민수 감독의 지도 아래 황성은 김예지, 이시운, 윤선정 네 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등 국내 주요 사격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객민수 감독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에 집중하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 창원국체사격장에서 개최되는 2022 한겨울 하계아시안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대회의 값진 은메달을 축하하고, 선수들이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태권도장 활성화' 광고 만족도 93.9%

전국 지상파·JTBC 등에 247회 송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이 지난 2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 광고에 대해 태권도장 관장, 사범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 광고는 배우 김재원씨와 아들 김이준군 그리고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 전 선수의 출연해 태권도 수련의 필요성 등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SBS와 KBS2 등 전국 지상파, JTBC YTN 등의 TV 채널에 총 247회가 송출되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소개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이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의 확인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태권도 관장과 사범 등 130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광고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93.9%의 응답자가 만족(만족, 매우 만족) 했고 태권도 활성화 및 태권도장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5.4%가 도움(도움, 매우 도움) 된다고 답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태권도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든 캠페인 같다", "적절한 시기에 일선 도장에 꼭 필요한 광고이다", "모델인 김재원 부자가 함께 태권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는 등 캠페인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광고를 통한 캠페인 전개를 해주면 좋겠다", "허리 이외에도 중·장년층까지 수련과 운동이 가능함을 표현해 달라" 등 향후 태권도장 활성화 캠페인 진행시 발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선 태권도장의 활기를 되찾고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이번 캠페인 광고에 대해 일선 관장과 사범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뿌듯함을 느낀다"라며 "설문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재단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러시아·벨라루스, 세계수영선수권 출전 불가

국제수영계, 제재 동참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그들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를 향한 국제 스포츠계의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영계도 행렬에 동참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올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2022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참가를 막겠다고 24일(한국시간) 밝혔다. 당초 FINA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완전 퇴출한 다른 종목들과 달리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결정에 비난 여론이 일고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가 나온다면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FINA는

조근부 출전마져 막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축구, 육상, 체조, 스키 등이 제재를 선언한 가운데 수영까지 가세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실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발되자 러시아수영연맹은 FINA에 올 시즌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FINA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림반도 8주년 기념행사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Z' 표시를 옷에 달고 참석한 러시아 수영선수 에브게니 리로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도쿄올림픽 남자 수영 100m와 200m 금메달리스트인 리로프는 이 여파로 후원사인 스피도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했다. /뉴시스

김시우, WGC 매치플레이 첫판 승리... 임성재는 패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에 나선 김시우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김시우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니얼 버거(미국)를 2홀차로 꺾었다. 같은 13초 최고 강호를 무너뜨린 김시우는 조 상위 1명에게 주어지는 16장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매치플레이 방식의 이번 대회는 64명의 선수가 4명씩 16개조를 꾸려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16명이 모여 1대1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 김시우는 1~2번홀에서 버거가 모두 보기를 범한 덕분에 시작과 함께 2홀차 리드를 잡았다. 5번홀과 6번홀에서도 버거를 누르고 4홀차까지 치고 나갔다. 버거의 추격에 한때 1홀차까지 쫓긴 김시우는 마지막 18번홀에서 버터를 낚아 파에 그린 버거를 2홀차로 밀어내고 승리를 확정했다. 4조의 임성재는 첫 경기에서 세이머스 파워(아일랜드)에 패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